급하게 하느라 미흡하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2019서울시 제1회 7급 국어(A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효(孝)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 p.7, 34, 38, 39, 179, 188, 189, 190, 191, 227, 240, 241, 186, 192, 193, 220, 224, 225)

① 斑衣之戱
② 斷機之戒
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 p.7, 34, 38, 39, 179, 188, 189, 190, 191, 227, 240, 241, 186, 192, 193, 220, 224, 225)

① 斑衣之戱(반의지희): 斑(아롱질 반) 衣(옷 의) 之(갈 지) 戱(희롱할 희)
1)의미: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②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후한서≫의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것으로, 맹자가 수학(修學) 도중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그를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③ 陸績懷橘(육적회귤): 陸(뭍 육) 績(길쌈할 적) 懷(품을 회) 橘(귤 귤)
1)의미: 육적이 귤을 품는다는 뜻으로, 효자의 정성스러운 행실을 말함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望(바랄 망) 雲(구름 운) 之(갈 지) 情(뜻 정).
1)의미: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정답: ②

2.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p.227 ☺영보이 포인트 #17) 순수 어휘)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 : 시름
② 반의 관계(antonymy) - 볼록 : 오목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 : 손자
④ 부분 관계(metonymy) - 코 : 얼굴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p.227 ☺영보이 포인트 #17) 순수 어휘)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 : 시름
1)동의어: 뜻이 같은 말
② 반의 관계(antonymy) - 볼록 : 오목
1)반의어: 그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총각'과 '처녀', '위'와 '아래', '작다'와 '크다', '오다'와 '가다' 따위이다.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 : 손자
◆ 상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할아버지와 손자는 상하 관계라 할 수 없다. 상하 관계라 함은 회사에서 팀장님과 나의 관계처럼 위아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④ 부분 관계(metonymy) - 코 : 얼굴
◆ 부분 관계는 포함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눈, 코, 입 등은 얼굴에 포함되므로 코와 얼굴은 부분 관계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3. < 보기 >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3)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p. 337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 보기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맡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3)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p. 337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 교체(交替):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뀜
◆ 탈락(脫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짐
◆ 첨가(添加): 없던 음운이 추가
◆ 축약(縮約):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됨

①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O)
◆ '일'에 'ㄴ'이 첨가되어 [닐]이 되었다.
◆ '집'의 'ㅂ'이 [ㅁ]으로 교체가 일어났다.
◆ 'ㅇ'은 받침이 아닐 경우, 즉 초성일 경우 음운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ㄴ'이 첨가되어 음운의 개수가 집일(5개) → [짐닐](6개)로 늘었다.

②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X) → 교체이고 음운의 개수는 7개에서 6개로 줄었다.
◆ '닭'의 'ㄺ'이 비음화로 인해 [ㅇ]으로 '교체'된 것이다.
◆ 비음화: 어떤 음의 조음(調音)에 비강의 공명이 수반되는 현상. '십만'이 [심만], '먹는다'가 [멍는다]가 되는 것 따위이다. ≒ 콧소리되기.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ㅁ', 'ㅇ' >
☺영보이 암기tip) **비음**을 내는 **나무야** (ㄴㅁㅇ)
ㄴㅏ ㅁ ㅇㅑ ~ ㄴㅏ ㅁ ㅇㅑ '**비음**'을 내는 ㄴㅏ ㅁ ㅇㅑ~ ♪♩♬
◆ 음운의 개수: 닭만(6개) = [당만](6개)

③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X) → 교체 + 축약
◆ '뜻하다'에서 'ㅅ'이 'ㄷ'[뜯]으로 교체가 일어났고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되어 축약이 일어났다.
◆ 음운의 개수는 뜻하다(7개) → [뜨타다](6개)로 줄었다.

④ ㉣'맡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X) → 교체는 두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6개로 변화 없다.
◆ '맡는'은 '맡다'에서 'ㄷ'[맏]' → 'ㄴ'[만는]처럼 비음화로 인해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 음운의 개수: 맡는(6개) = [만는](6개)

정답: ①

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p. 449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p. 449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적 단위.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관형어、부사어、독립어 따위가 있다.
◆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따위가 있다.
◆ 부사어: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형용사가 어미 '-게' 따위로 활용한 말,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관형어)
◆ '어머니의'는 명사 '말씀'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부사어)
◆ 이 문장에서 '아주'는 '새'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문장성분은 부사어이고 품사는 부사이다.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관형어)
◆ 이 문장에서 '바로'는 품사로는 부사이나 체언 '옆집'을 꾸며 주어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관형어)
◆ 이 문장에서 '예쁜'은 품사로는 형용사이나 문장 성분은 체언 '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정답: ②

5. < 보기 >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5)**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36 ☺영보이 포인트 #8) 높임법(경어법)**

< 보기 >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5)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36 ☺영보이 포인트 #8) 높임법(경어법)**

◆ **주체 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문장의 주체를 높여 표현한다.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위이다. - / 선생님은 댁에 계셨다. /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신 편입니다.

* **간접 높임**: 귀가 밝으시다 /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객체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ᄉᆞᆯ -, -ᄉᆞᆸ -, -ᄌᆞᆯ -, -ᄌᆞᆸ -, -ᄉᆞᇙ -, -ᄉᆞᇹ -'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뵙다', '드리다', '여쭈다'를 써서 표현한다. - 어머니를 모시고(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 /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 영호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와서 / 할아버지를 꼭 뵙고 / 여쭈어 볼 게 있어요. /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 **상대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편을 높여 표현한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와 비격식체('해체', '해요체')가 있다. - 할머니, 아빠가 방금 들어왔어요.(청자(상대) 높임 + 압존법)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O)
- ◆ 어머니께서'와 '주셨'으로 보아 '+주체' 높임법이 쓰였다.
- ◆ 객체인 '영희'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객체'
- ◆ '주셨다'로 보아 청자인 상대에게 존대를 하지 않으므로 상대 높임법은 쓰이지 않았다.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X) → (-주체, +객체, **-상대**)
- ◆ 주어 '영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는 것이므로 '-주체'이자 '+객체'는 옳다.
- ◆ 하지만 '드렸다'로 보아 상대에게 존대를 하지 않으므로 상대 높임법은 쓰이지 않았다. '드렸습니다.'로 한다면 상대 높임이 맞다.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O)
- ◆ '어머니께서'와 '주셨'으로 보아 '+주체' 높임법이 쓰였다.
- ◆ 객체인 '영희'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객체'
- ◆ '습니다'로 보아 청자인 상대를 높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O)
- ◆ '어머니께서', '셨'으로 보아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
- ◆ '할머니께', '드리'로 보아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입법
- ◆ '습니다'로 보아 청자인 상대를 높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입법

정답: ②

6. < 보기 >는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6) (2019영보이 교재 초대박 적중: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p. 251,)2019영보이 한자(p. 35, 180, 182), 2019영보이 고사성어(p. 311, 318, 319)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술빚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인생 (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물 위로 꽁지를 닿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
내 전하고픈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① 오십　② 육십　③칠십　④ 팔십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6) 2019영보이 교재 초대박 적중: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p. 251,)2019영보이 한자(p. 35, 180, 182), 2019영보이 고사성어(p. 311, 318, 319

◆ 두보: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712~770).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공부(工部)、노두(老杜). 율시에 뛰어났으며, 긴밀하고 엄격한 구성, 사실적 묘사 수법 따위로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였다. '시성(詩聖)'으로 불리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힌다. 작품에 <북정(北征)>, <병거행(兵車行)> 따위가 있다.

◆ 고희(古稀): 고래(古來)로 **드문 나이**란 뜻으로, 일흔 살을 이르는 말. 두보의 <곡강시(曲江詩)>에 나오는 말이다. / 古(옛 고) **稀(드물 희)**
◆ 70세를 나타내는 말: 고희(古稀), 종심(從心), 희년(稀年), 희수(稀壽)
　cf. 喜壽(희수) : 희(喜)자는 숫자 칠로도 사용하여 **喜壽**(희수)는 칠+칠 살, 즉 일흔일곱.(77세)

◆ 두보의 「곡강」: 곡강은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 동남쪽에 있는 연못이다. 이는 연못의 물이 굽이치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 애상적이고 성찰의 모습을 담은 7언 율시의 한시이다.
　2) 주제는 곡강에서 느끼는 애상감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명성을 멀리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3) 곡강의 쓸쓸한 봄 풍경으로 화자는 애상감에 젖어 있다.

정답: ③칠십

7. < 보기 >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7)**

< 보기 >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③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7)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X)
◆ 불가분(不可分): 나눌 수가 없음
◆ '불가분'은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인데,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로 보아 모순이다.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X)
◆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로 보아 몸은 물리적 실체이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비물리적 실체라 할 수 있다.

③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O)
◆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로 보아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과 몸은 독립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X)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로 보아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과 몸은 독립되어 있으므로 몸이 없는 마음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8.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8)**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영보이 포인트 #42) 형태론)**

① 파김치 ② 짜임새 ③주름살 ④ 지름길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8)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영보이 포인트 #42) 형태론)**

◆ 형태소(形態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야기책'의 '이야기', '책' 따위이다.

① 파김치: '파김치'는 합성어로 '파 + 김치'로 구성된 단어로 형태소의 개수는 2개이다.

② 짜임새: '짜임새'는 '짜다'의 피동사인 '짜이다'와 '-새'('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를 분석하면 '짜 + 이 + ㅁ(명사형 접미사) + 새(접미사)' 총 4개이다.

③ 주름살: '주름살'은 '주름 + 살'로 구성된 단어로 형태소의 개수는 2개이다.
④ 지름길: '지름길'은 '지르 + ㅁ(명사형 접미사) + 길'로 구성된 단어로 형태소의 개수는 3개이다. **정답: ②**

9.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9)** **(2019영보이 교재 초대박 적중)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p. 96), 2019영보이 고사성어(p. 182, 188, 189)**

① 첫술에 배부르랴.
② 내 코가 석 자다.
③공든 탑이 무너지랴.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9) **(2019영보이 교재 초대박 적중)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p. 96), 2019영보이 고사성어(p. 182, 188, 189)**

◆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
1)의미: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① 첫술에 배부르랴. :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말.
② 내 코가 석 자다. :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吾鼻三尺(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라는 뜻으로,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

③공든 탑이 무너지랴. :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cf.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 조그마한 실수나 방심으로 큰일을 망쳐 버린다는 말.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는 못하듯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정답: ④

10.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0)**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546, 547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 보기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① 사소함 ② 괴로움 ③ 기다림 ④ 생각함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0)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546, 547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 이 작품은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이다.
◆ 화자는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소함'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반어법으로 그 사랑이 진중하고 깊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현기법을 묻는 문제이므로 이 시가 반어법을 사용한 것을 알면 정답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다. 따라서 반어법이 쓰인 '사소함'이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11.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1)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550, 407, 542, 539,)

< 보기 >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②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③ 이문 구의 「우리 동네 김씨」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1)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550, 407, 542, 539,)

◆ 구상의 「초토의 시」(1956): 총 15편의 연작시로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이다.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김승옥(金承鈺)이 지은 단편 소설.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려는 고립된 개인의 복잡한 심리를 내용으로 하여, 개인의 삶과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의 파악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시대적 배경은 1960년이다.

②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1973): 전지적 작가 시점 /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1977): 농민 김 씨를 통해 가뭄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농촌의 생활 모습과 민방위 교육으로 산아제한정책을 펴는 국가의 가족계획사업이 담겨있다.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이다.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은 젊은이의 고뇌와 방황을 담은 작품이다.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12.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416, 417, 423)

① 손쉽다 ② 맛나다 ③ 시름없다 ④ 남다르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2)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416, 417, 423)

◆ 주격 조사: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따위가 있다.
cf. 보조사(補助詞):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 '은', '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 >
① 손쉽다(형용사): 손(이) 쉽다 / 주격 조사 '이'
② 맛나다(형용사): 맛(이) 나다 / 주격 조사 '이'
③ 시름없다(형용사): 시름(이) 없다 / 주격 조사 '이'
④ 남다르다(형용사): 남(과) 다르다 / 비교 부사격 조사 '과'

정답: ④

13.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3)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27, 42, 58, 69, 74, 29, 11)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 p. 277)

< 보기 >

㈎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 이화우(梨花雨) 흣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ᄒᆞᆫ 님 /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ᄂᆞᆫ가 /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ᄒᆞ노매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3)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27, 42, 58, 69, 74, 29, 11)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 p. 277)**

④ ㈐-㈏-㈎-㈑ (O)
④ 황조가(고구려 유리왕) - 제망매가(신라시대 경덕왕/10구체 향가) - 송인(고려 인종 때 문인 정지상) - 계랑의 시조(조선 선조 때)

㈐ 翩翩黃鳥(편편황조) < 포롱포롱 나는 저 꾀꼬리 >
雌雄相依(자웅사의) < 암수 서로 의지하고 있네. >
念我之獨(염아지독) < 외로울사 이 내 몸은 >
誰其與歸(수기여귀) <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
◆ 황조가(黃鳥歌): 고구려 유리왕 3년(B.C.17)에 왕이 직접 지었다는 노래. 유리왕의 두 후실인 화희(禾姬)와 치희(稚姬)의 다툼으로 치희가 중국으로 달아나 버리자 왕이 치희를 찾으러 다녔으나 찾지 못하던 중에, 꾀꼬리 한 쌍이 정답게 노니는 모습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한역시가 ≪삼국사기≫에 전한다.
* 대조를 통한 시상 전개 < 정다운 암수 꾀꼬리 vs 외로운 나 >
*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 < 꾀꼬리의 모습을 묘사한 후 외로운 자신의 심경을 밝힘 >

㈏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 **제망매가**(祭亡妹歌): 신라 경덕왕 때에 월명사가 지은 10구체의 향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릴 때에 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지전(紙錢)이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비 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임을 남포에서 떠나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네.
大洞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대동강 물은 어느 때에 마를 것인가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이별의 눈물은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네.
◆ 정지상의 「宋寅(송인)」: 고려 인종 때(1109~1146)에, 문인 정지상이 지은 칠언 절구. 대동강 변에서의 이별의 슬픔을 읊은 서정시이다.
◆ 정지상(?~1135): 고려 인종 때의 문신·시인(?~1135). 초명은 지원(之元). 호는 남호(南湖). 묘청의 난에 연루되어 김부식에게 피살되었다. 시에 뛰어난 고려 12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역학과 노장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에 ≪정사간집(鄭司諫集)≫이 있다.
㈑ 梨花雨 흣쁘릴 제 울며 잡고 離別ᄒᆞᆫ님 < 이화우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
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ᄂᆞᆫ가 < 가을바람 떨어지는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
千里에 외로운 ᄭᅮᆷ{만 오락가락 ᄒᆞ노매. <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
◆ 계랑의 시조: 이별한 임을 그리워 함

◆ 계랑: 조선 선조 때의 시인(1573~1610). 성은 이(李). 이름은 향금(香今). 자는 천향(天香). 호는 매창(梅窓). 계생(癸生)이라고도 하였다. 부안(扶安)의 명기(名妓)로 시, 노래, 거문고에 뛰어났다. **정답: ④**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 보기 >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 알-: 알+는→[아:는]　　㉯ 안-: 안+고→[안:꼬]

㉰ 아름답-: 아름답+은→[아름다운]　　㉱ 먹-: 먹+는→[멍는]

① ㉮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② ㉯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③ ㉰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④ ㉱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완벽한 정리 : ☺영보이 포인트 #27) 음운론)

① ㉮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O)
◆ 'ㄹ'은 유음이고 'ㄴ'은 비음이다. 따라서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어 예외 없이 'ㄹ'과 'ㄴ'이 연속될 때는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이다.

② ㉯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X) → 비자동적 교체
◆ (표준 발음법 제6장 제24항)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신고[신:꼬] / 껴안다[껴안따] / 앉고[안꼬] / 닮고[담:꼬] / 삼고[삼:꼬] / 더듬지[더듬찌] / 얹다[언따] / 젊지[점:찌] >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안기다[안기다] / 감기다[감기다] / 굶기다[굼기다] / 옮기다[옴기다] > / 따라서
◆ 따라서 'ㄴ'과 'ㄱ'이 연속되더라도 '안고[안:꼬]'는 경음으로 발음되지만 '안기다[안기다]'는 경음으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비자동적 교체이다.

③ ㈐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X) → 비자동적 교체

◆ '아름답(다) + 은'은 '아름다운'처럼 [운]으로 발음되지만 '이를 뽑다'에서 '뽑(다) + 은'은 [뽀븐]처럼 '븐'으로 발음되므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④ ㈑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X) → 자동적 교체

◆ (표준발음법 제5장 제18항)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 먹는[멍는] / 국물[궁물] / 깎는[깡는] / 키읔만[키응만] / 몫몫이[몽목씨] / 긁는[긍는] / 흙만[흥만] / 닫는[단는]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자동적 교체이다.

정답: ①

1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5)**

< 보기 >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꿴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나뇨."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5)

◆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 조선 시대의 한글 수필. 세요각시(바늘), 척 부인(자), 교두 각시(가위), 인화 부인(인두), 울 낭자(다리미), 청홍흑백 각시(실), 감투할미(골무) 따위를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를 풍자하였으며, ≪망로각수기(忘老却愁記)≫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O)

◆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로 보아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X)
◆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로 보아 타인의 자랑을 인정하지 않고 나(바늘)의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X)
◆ '재단에 능소능대하다'는 '재단 두루 능하다'는 의미이다.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X)
◆ '척 부인'은 '자'가 맞으나 '교두 각시'는 '가위'를 가리킨다.

정답: ①

16.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6)**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495)**

< 보기 >
㈎ 내가 책을 읽었다.
㈏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 우리가 산을 봅니다.
㈑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6)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495)**

㈎ 내가 책을 읽었다. (주동문)
㈏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사동문)
㈐ 우리가 산을 봅니다. (능동문)
㈑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피동문)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O)
◆ '읽다'의 사동사 '읽히다'는 사동접사 '히'가 결합되어 파생어이고 '보다'의 피동사 '보이다'는 피동접사 '이'가 결합되어 파생어이다.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X)
◆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적 단위.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관형어、부사어、독립어 따위가 있다.

㈏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사동문)
◆ 행위의 주체는 '나'가 되는데 서술어 '읽히셨다'에는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나에게'라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었다.
㈐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피동문)
◆ 행위의 주체는 '우리'가 되는데 부사어 '우리에게'가 없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므로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O)
㈎ 내가 책을 읽었다. (주동문)
주어
㈏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사동문)
부사어
㈐ 우리가 산을 봅니다. (능동문)
주어
㈑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피동문)
부사어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O)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자신을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
㈎ 내가 책을 읽었다. (주동문) - '읽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사동문) - '읽히셨다'는 세 자리 서술어
주어 부사어 목적어
㈐ 우리가 산을 봅니다. (능동문) - '봅니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피동문) - '보입니다'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정답: ②

17. <보기>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7)**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219, ☺영보이 포인트 #14) 변화 과정(의미, 형태)**

< 보기 >	
㈎ 놈: '사람평칭'→'남자의 비칭'	㈏ 겨레: '종친, 친척'→'민족, 동족'
㈐ 아침밥 > 아침	㈑ 맛비 > 장맛비

①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②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③ ㈐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④ ㈑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7)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219, ☺영보이 포인트 #14) 변화 과정(의미, 형태)**

* 의미의 **축소(의미의 특수화)**: 놈, 공갈, 짐승,
* 의미의 **확대(의미의 일반화)**: 겨레, 영감, 장인(匠人), 다리
* **의**미의 **타락적 변화**: 마누라
* 의미의 **이동**: 인정(人情)

☺영보이 암기tip)
☺ 놈의 모습이 축소되었다. < 놈의 축소 >
☺ 영감이 사진이 확대되었다. < 영감의 확대 >
☺ 시내에 다리가 확대되었다. < 다리의 확대 >
☺ 짐승이 못 먹어 축소되었다. < 짐승의 축소 >
☺ 인정이 이동되었다. < 인정의 이동 >

①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O)
◆ '**놈**'은 '사람'의 옛말로 쓰였지만 현재에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의미가 **축소**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영보이 암기tip)** **놈**의 모습이 **축소**되었다. < **놈**의 **축소** >
②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O)
◆ '겨레'는 옛날에는 '종친, 친척'으로 한정되었으나 현대에는 '민족, 동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영보이 암기tip)** 우리 **겨레**는 영원히 **확대**될 것이다. < 우리 **겨레**의 - **확대** >
③ ㈐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O)
◆ 현대에는 '아침 먹었어?'와 같이 아침밥이라 하지 않아도 '아침'으로 전체 의미가 통하므로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라 할 수 있다.

④ ㈑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X)
◆ '맛비'는 '장마'의 옛말이다.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를 말한다.
◆ '장맛비'는 장마 때에 오는 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가 변화한 예이다.

정답: ④

18.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8)**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완벽한 정리 :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8)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완벽한 정리 : ☺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 조사(助詞):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크게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눈다.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격 조사)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격 조사)
◆ 하고: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사소한 오해로 그는 애인하고 헤어졌다.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접속 조사)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격 조사) **정답: ③**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9)**

< 보기 >

◆ 자내 샹해 ㉠**날ᄃᆞ려** 닐오ᄃᆡ 둘히 머리 셰도록 사다가 ᄒᆞᆷ긔 죽쟈 ᄒᆞ시더니 엇디ᄒᆞ야 나ᄅᆞᆯ 두고 자내 몬져 가시ᄂᆞᆫ < 당신이 항상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가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신 겁니까? >
◆ 날ᄒᆞ고 ᄌᆞ식ᄒᆞ며 뉘 긔걸ᄒᆞ야 엇디ᄒᆞ야 살라 ᄒᆞ야 다 더디고 자내 몬져 가시ᄂᆞᆫ고 < 나하고 자식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
자내 날 향ᄒᆡ ᄆᆞᅀᆞᄆᆞᆯ 엇디 가지며 나ᄂᆞᆫ 자내 ㉡**향히** ᄆᆞᅀᆞ믈 엇디 가지던고 < 당신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으며 나는 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
◆ 믜양 자내ᄃᆞ려 내 닐오ᄃᆡ 혼ᄃᆡ 누어셔 이 보소 ᄂᆞᆷ\도 우리ᄀᆞ티 서ᄅᆞ 에엿삐 녀겨 ᄉᆞ랑ᄒᆞ리 < 매번 당신에게 나는 말하되 함께 누워 여보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삐 여겨 사랑할까요? >
◆ ᄂᆞᆷ\도 우리 ᄀᆞᄐᆞᆫ가 ᄒᆞ야 자내ᄃᆞ려 니ᄅᆞ더니 엇디 그런 이ᄅᆞᆯ 싱각디 ㉢**아녀** 나ᄅᆞᆯ ᄇᆞ리고 몬져 가시ᄂᆞᆫ고 < 남도 우리와 같은가요? 라고 당신에게 말했는데 어찌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 겁니까? >
◆ 자내 ㉣**여히고** 아ᄆᆞ려 내 살 셰업ᄉᆞ니 수이 자내 혼ᄃᆡ 가고져 ᄒᆞ니 날 ᄃᆞ려 가소 < 당신을 **여의고** 아무리 해도 난 살 수 없습니다, 빨리 당신에게 가고자 하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

① ㉠ 나를 따라서 ② ㉡ 향하여 ③ ㉢ 아니하여 ④ ㉣ 여의고

정답 및 해설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19)

◆ 이것은 일명 '원이 아버지께'라고 불리는 한글 편지다. 1998년 4월 24일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택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안동대학교 박물관 조사팀이 50여 점의 의복 자료와 함께 발견한 문서다.

① ㉠ 날ᄃᆞ려 : 나를 따라서 (X) → 나에게

② ㉡ 향히 : 향하여 (O)
③ ㉢ 아녀 : 아니하여 (O)
④ ㉣ 여히고 : 여의고 (O)

정답: ①

20. <보기>의 ㉠ ~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 20)**

< 보기 >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하고 물을 것이다.

	㉠	㉡	㉢
①	플롯(plot)	왜?	그 다음엔
②	플롯(plot)	그 다음엔?	왜
③	테마(theme)	언제?	왜
④	테마(theme)	그 다음엔?	왜

정답 및 해설(2019서울시 1회 A책형 문20)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플롯**)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플롯**)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플롯**)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그 다음엔?**)'하고 물을 것이며, (**플롯**)의 경우엔 '(**왜**)'하고 물을 것이다.

◆ 플롯(plot):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
◆ 테마(theme):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주된 내용. '주제'로 순화.

정답: ②

- 영보이 저서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판매 중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판매 중 >
◆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